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합니다.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20.(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하고,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자립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지원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천안고용복지+센터 서대연 책임상담원은 자립지원전담 기관이 발굴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이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협업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두 부처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들도 협약식 행사에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아동보호·자립지원정책과 사회진입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이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성인기 안착을 위해 일자리가 필수적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은 일자리 유지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자립지원연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을 중심에 두고 두 부처가 협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부처 간 분절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훌륭한 사례이므로 좋은 성과를 내서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현주 한신대학교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진정한 자립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이 자립준비청년의 전 생애에 걸친 자립지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와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두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한편,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이들에 대한 소득·심리정서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담당자	사무관	이현규 (044-202-737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이에진 (044-202-3443)

붙임 1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고용복지+센터 연락처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고용복지+센터
서울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02-2226-1524)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02-2077-3471)
부산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441-7006)	부산고용복지+센터 (051-860-1942)
대구	대구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053-243-009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053-605-6454)
인천	인천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032-204-4279)	인천고용복지+센터 (032-460-4910)
광주	광주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062-672-1930)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788)
대전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042-242-5726)	대전고용복지+센터 (042-480-6429)
울산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052-265-5636)	울산고용복지+센터 (052-228-396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자립지원전담기관 (044-867-2056)	세종고용복지+센터 (044-861-8965)
경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의왕: 031-346-6994) (구리: 031-522-6491)	안양고용복지+센터, (031-463-3873) 구리고용복지+센터 (031-560-583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033-261-2340)	춘천고용복지+센터 (033-250-1957)
충북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043-238-5393)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57)
충남	충청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041-541-6553)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9583)
전북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063-714-3329)	전주고용복지+센터 (063-270-9038)
전남	전라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순천: 061-742-4908) (목포: 061-282-4908)	순천고용복지+센터 (061-720-9102)
경북	경상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054-456-9942)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38)
경남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055-265-7942)	창원고용복지+센터 (055-239-099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064-759-0846)	제주고용복지+센터 (064-710-4480)

붙임 2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 일 시: '23. 12. 20.(수) 16:30~17:10 (40')
- 장 소: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영플러스 서울(0+SEOUL)
 - * 서울 용산구 청년안심주택(용산베르디움 프렌즈, 주상복합) 2층 상가 건물에 입주
 -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의 활동 지원, 소통공간 제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김재석 서울서부고용센터 소장, 서대연 책임상담원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장
 - (유관기관)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이소영 관장(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문가) 이상정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유민상 센터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자립지원연구센터) 김유빈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오현주 교수(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 (자립준비청년) 주우진 회장(자립준비청년협회)

【 주요 내용 】

- 자립준비청년이 일을 통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상호 협력을 기초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아직 보호를 받는 중인 보호아동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하여 진로·적성 탐색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세부계획

* 행사전체 공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협약식	16:30~16:35(5')	<input type="checkbox"/> 참석자 소개 및 협약식 취지 안내	이현규 사무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16:35~16:41(6')	<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차관 말씀	
	16:41~16:45(4')	<input type="checkbox"/>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전문가 제언	16:45~16:50(5')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사례 공유	서대연 상담원 (천안고용복지+센터)
	16:50~17:00(10')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방향성 제언	참석자
시설 소개	17:00~17:10(10')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시설 소개	어진희 팀장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 먼저, 이번 업무협약을 함께 준비해주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님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 현장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매년 2,0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보호종료되고 있습니다.
 - 가정이라는 울타리 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득·고용·주거·교육 등 전 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대일 자립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립초기 학업·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도
지속 인상하여 올해 월 40만원을 지급 중이며,
내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도 각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특화된 취업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성장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업무 협약은 두 부처가 가진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자원을 한 데 모아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 지원 분야 중에서도
취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하여 두 부처는
보호아동의 진로·적성 파악부터
보호종료 후의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소득·심리정서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최일선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체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한명 한명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전달체제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현장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이성의 차관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전문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소통공간인 이곳 영플러스 서울(O+SEOUL) 운영을 비롯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는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해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적정 독립시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자산형성 이후’ 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취업 후’, ‘결혼 후’ 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청년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2022,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산형성 이후’ 27.8%, ‘취업 후’ 27.2%, ‘결혼 후’ 23.1%로 응답

- 그러나 또 어떤 청년들은
어쩔 수 없는 독립을 맞이해야 합니다.
연간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보호 종료에 따라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힘을 모았습니다.
- 두 부처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소득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의 일을 통한 자립을 돕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장기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부재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과,
보호를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전 생애에 걸친 유기적인 자립지원의
탄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상담원과의 유대감을 기초로
청년들이 취업에 도전하고,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동의 진로·적성 파악을 돕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까지
더 일찍 개입하여
진로·적성 파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부처 간 협업체제를 토대로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정책을 세심히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저는 사회로 첫 발돋움을 하는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②

공동체에서 벗어나 곧 독립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 계약 공과금내기 직장구하기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처음해보는 일 루성이인데요
저, 잘해낼수 있을까요?

③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쳤다!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서비스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자립지원상담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호이동시기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④

자립준비청년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상담 → 진로-적성 탐색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역량을 높이고


자기소개서·면접 교육도 꼼꼼히 → 딱 맞는 일자리 매칭!

취업성공!
취업 후에도 상담사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자립 안착까지 지원!

⑤

자립준비청년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우리 지역 자립지원상담기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